



한국 대학의 국제경쟁력

오 환 섭 | 경희대학교 교수

I. 시작하면서

한 나라의 국제경쟁력은 대학의 국제경쟁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라의 경제·사회는 대학이 배출한 인적자원에 의해 움직이고 그 자원의 육성을 대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우리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대학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만 한다. 많은 대학들이 인류 사회의 문화 복지 발전에 기여할 지도자적 인재 양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학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가치를 창출하느냐 하는 것을 국제적 시각에서 평가하는 것으로서, 첫째는 국제사회에서의 졸업생의 위상과 기여도, 둘째는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의 가치 창출 능력, 셋째는 산업 및 사회의 요구에 대한 부응 정도 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2004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연감과 상하이교통대학의 세계

대학 평가 순위는 우리 대학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현시점에서 외국 기관의 평가 결과에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제시하는 거울에 우리 모습을 비춰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를 보는 결과이므로 반론도 있겠지만 다 묻어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II. 평가 기준 및 방법

나라마다 대학의 평가기준은 있으나 국제적으로 세계의 대학을 줄을 세운 예는 드물다. 그중에서 상하이교통대학의 세계 대학 순위 평가는 평가 기준이 노벨상 수상 여부에 치우친다는 비판도 있으나, 국제적 시각에서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졸업생의 노벨상 및 필즈메달의 수상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대학교육이 인류의 문화·복지 향상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또한 교수의 자질과 연구실적 부분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의 가치창출 능력은

〈표 1〉 세계 대학 평가 순위

	평가요소	국내 S대학	Tokyo University
교육의 질	① 졸업생의 노벨상 & 필즈메달(10%)	0	36.1
교육의 자질	② 노벨상 & 필즈메달(20%)	0	14.4
	③ 노벨상을 제외한 각 분야를 리드하는 연구자(20%)	0	44.5
연구 실적	④ 네이처와 사이언스(20%)	15.4	55
	⑤ SCI 등재지(20%)	62.6	91.9
규모대비 학술성과(10%)		17.4	49.8

* 자료 출처 : 상하이교통대학(<http://edsitu.edu.cn/ranking.htm>)

〈표 2〉 2004 IMD 세계경쟁력 연감

구분	2004
국가경쟁력	35
교육경쟁력 종합순위	44
25~34세 중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	52
교육체계가 경쟁적인 경제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5
대학교육이 경쟁적인 경제사회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59
유능한 엔지니어를 노동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도	52
기업과 대학 간 지식이전이 충분한 정도	42

* 자료 출처 : (주)경쟁력평가원(<http://www.cvikorea.net>)

평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사용하고 있는 교육 경쟁력 평가 부분의 항목들도 대학과 사회의 연계성을 평가하고 대학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좋은 자료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양 기관의 평가 자료를 종합하면 대학 교육의 질, 교수 자질, 연구실적,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지원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Ⅲ. 평가결과 및 시사점

1. 평가결과 우리 대학의 국제적 위상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4 IMD 세계경쟁력 연감(이하 'IMD 연감')은 우리 대학교육의 총체적 경쟁력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능력'에 대한 상대적 평가로서 기업의 시각에서 교육경쟁력을 평가한 것이다. 2004 IMD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은 60개 국가 및 지역 중 하위이고, 이중 교육경쟁력은 44위로 나타났다. 또 상하이교통대학이 실시한 세계 대학의 순위를 보면 100위 이내의 대학으로서 미국은 51개, 일본은 5개 대학인데 반하여 한국은 전무하다. 또 500위 이내의 대학은 미국이 170개, 일본이 36개, 중국이 16

개, 한국의 경우 8개 대학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학은 세계 순위 100위권 내에 들지 못하였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10위권 내에 진입한 대학이 없다.

2.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자랑할 만한 동문과 교수, 연구업적 등이 부족하므로 인재의 산실인 대학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다고는 하나 실제로 대학으로서 모습을 갖추고 교육을 시작한 것은 겨우 30여 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다면 분야별로 세계적인 리더급 연구교수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 SCI 논문게재 실적이 크게 향상된 것은 그동안 대학개혁 의지와 노력의 결실일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은 국제경쟁력의 측면에서는 크게 뒤쳐져 있다. 산업 여건, 교육 여건, GDP 대비 공교육비가 52위로서 최하위인데 비하여 국민의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고등교육 수혜율이 세계 5위로 아주 높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교육체제와 대학교육이 경제·사회요구에 잘 부합되는가, 또 유능한 엔지니어를 잘 길러내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투자 기술 이전 정도도 아주 미흡한 수준이다. 즉, 이상의 점에서 공교육 및 사교육비를 합친 교육비를 투자한 만큼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제경쟁력을 위한 초·중등 교육에서 대학교육, 평생교육에 이르는 체계적인 교육계획과 투자계획이 미흡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Ⅳ.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1. 교육 분야의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교육의 국제경쟁력이 낮은 원인은 기업이 중등교육에서 사교육비 부담과 입시위주의 교육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결국 우수한 인재의 육성은 우수한 자원, 교육환경, 교수 등이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 질 수밖에 없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대학은 대학과 산업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정서를 핑계로 3불정책을 고집하고, 학생과 등록금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대학이 있는 한, 기업과 사회가 신뢰하는 대학교육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 대학의 경우, 세계 속에서 인류복지를 지향하는 우리민족의 인재교육의 틀이 완성되고, 사회가 성숙되고 책임 있는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할 때 노벨상 수상과 같은 실적도 가능하다고 본다.

2. 연구 분야의 대안은 무엇인가?

동문과 교수의 자질이 떨어지는 경우 연구 실적은 단순히 양적인 면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 국내 대다수의 연구진이나 교수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은 그 분야에서 뛰어난 자질을 갖춘 교수가 해외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측정은 규모대비 학술적 성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학술적 분야의 경쟁력은 노벨상이나 필즈메달 수상자 또는 각 분야의 리더급 연구교수를 확보하여 SCI급 논문의 양적 성장을 질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즉, 국내 대학의 국제경쟁력 향상은

각 학문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리더급 경쟁력을 갖춘 교수들을 초빙하거나, 제2의 황우석 교수가 탄생할 수 있도록 집중과 선택을 통하여 유망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또 세계적 수준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며, 따라서 대학교육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고 지원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V. 수요자의 요구와 함께 생각해볼 것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은 우리 교육이 질적 측면에서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2004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인사담당자 중 84%가 자녀를 교육목적으로 해외에 보냈거나 고려 중이며, 유학을 보낸 경우 74%가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 조사결과 보고서,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 경제적 교육의 수준이 기업의 요구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 및 관련 지원 확대(41%), 산업계에 부합하는 학제개편 등 대학변화(25%)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이 요구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 대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자.

첫째, 교육목표에 관한 인식이다. 대학설립 목적에 포함되는 지도자 양성이라는 것은 학생이 졸업 후 가까운 장래에 도달해야 할 교육

목표(goal)로서 교육비전에 해당이 된다. 또 다른 목표는 학생이 졸업 시까지 도달해야 할 학습목표(objective)이다. 전자의 목표를 위하여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후자의 목표를 위하여 학사과정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후자의 교육목표를 졸업 시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단계별·과목별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교육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산학협동을 통한 생명력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유지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상품의 가치는 생산자가 아닌 고객이 결정하므로 고객이 요구하는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은 기업의 생명이다. 따라서 생명력을 갖춘 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만이 가치를 지니므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즉 가치창조가 가능한 능력의 창의적 교육이 필요하다. 대학은 산학협력을 통하여 생명력 있는 활기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과 대학생이 부속병원에서 체험학습을 하듯이 학습자가 수요자의 요구에서 전공지식, 마케팅까지 체험학습이 가능한 수준의 학교·기업의 설립과 산학협력이 구축·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자를 위한 고품질화 교육의 질적 기준 강화와 창의성 교육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대학이 무엇을 교육하였는가' 보다 '학생이 무엇을 할 줄 아느냐'가 중요하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서는, '학생이 배운 지식을 이해하느냐' 보다는, '학생이 배워서 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학습 평가 기준이 되고, '무엇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는 교육의 목표수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졸업 시까지 달성해야 할 교육목표를 정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 재정이 필요하므로 교육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고품질 교육체계의 확립과 졸업기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표준화하여야 할 것이다.

창의성은 무엇이 됐던 완성도가 높은 수준에서 발휘되는 능력이므로, 지식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단계의 창의성 교육은 고품질화 교육의 완성도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전제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Ⅵ.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대학의 국제경쟁력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스위스의 2004 IMD 연감과 상하이교통대학의 세계대학 평가 순위를 중심으로 그 원인과 대안을 살펴보고, 수요자의 요구와 함께 생각해 볼 것들에서 교육의 해외의존도와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시점에서 외국 기관이 평가한 결과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제시하는 거울에 우리 모습을 비추어 본 것이다. 비교 결과 한마디로 우리의 모습은 최하위 수준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대학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국제적 시각에서 볼 때, 아직까지 우리 대학은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매우 많다. 그리고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의 내용과 질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발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고, 기부제도가 미흡한 실정에서 등록금 협상을 하는 대학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국·사립을 구분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기업은 투자 없이 유능한 인력 육성만 요구한다면 대학의 국제경쟁

력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대학의 현실에 관심을 가질 때이다.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면, 바로 지금이 대학을 위하여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설 때이다. 정부는 현실관리에서 조속히 벗어나서 위기를 바르게 인식하고 대처해야 하며, 기업은 산학협력을 통하여 대학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백년대계의 장대한 국가교육 이념과 체계가 대학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와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모든 여건이 성숙될 때 세계적인 대학으로의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노벨상 수상자도, 세계적인 기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향후 시행될 대학평가와 정보공시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 ■■

오환성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공학사)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대학원에서 공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연구산학협력처장, Tokyo University 객원교수, 대학종합평가 위원, 한국창업보육센터협의회 부회장, 경기지역 창업보육센터 협의회장을 두루 거쳤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